

↑ 코스피 2255.98 (+37.30)	↑ 코스닥 683.67 (+8.72)
↓ 금리 (미국 9년) 3.632 (-0.029)	↑ 환율 (원·달러) 1271.70 (+0.70)



삼성전자가 CES2023에 조성한 스마트싱스 에코시스템 월

경계의 무한 확장 초연결 시대 진입



IoT 기기 플랫폼 하나로 활용
매터 표준·HCA 적용 잇따라

삼성전자 '초연결 경험' 전면
에코시스템 월 통해 제품 연동

글로벌 산업계가 '초연결' 시대로 진입한다. 그동안 중구난방식 개발이 이어졌지만, CES2023을 계기로 새로운 표준이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IT와 모빌리티 등 분야를 가리지 않은 진짜 통합도 빨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업체들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3에 '매터' 표준과 'HCA' 적용을 앞다퉈 선언한다.

매터와 HCA는 IoT 기기를 플랫폼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가전 업계와 IoT 제조사별로 각자 협업했지만, 매터와 HCA만 활용하면 구분없이 모든 기기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대표 주자는 단연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매터를 개발하는 CSA 의장사임과 동시에 HCA 회원사다. 일찌감치 개방형 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운영하며 전세계에서 1000만대를 연결하는 등 스마트홈 시장을 이끌어왔다.

올해에도 삼성전자는 '초연결 경험'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스마트싱스 허브를 내장한 모니터를 처음 선보인것은 물론, '에코시스템 월'을 통해 27개사 200여개 제품과 HCA 15개 회원사 제품을 연동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마존과 구글 등 CSA 회원들도 매터 알리기에 동참한다. 양사는 각각 알렉사 and 구글홈 등 스마트홈 플랫폼을 운영 중으로, 스마트싱스와 함께 매터를 적용하면서 지원하는 기기를 크게

넓히는데 성공했다. CSA 부스에서 IoT 연결을 함께 시연할 예정이다.

제너럴 일렉트릭(GE) 라이팅도 매터 표준에 합류했다. 매터를 지원하는 스마트 전구 Cync를 새로 공개했다. 이미 필립스 등이 매터 표준을 적용한 상황, 스마트 전구 업계에서도 매터 표준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매터 표준은 주요 이슈다. 노르딕 세미컨덕터와 NXP는 블루투스LE와 저전력 와이파이와 함께 매터 표준을 지원하는 제품과 기술들을 선보이기로 했다.

매터 표준은 커넥티드카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IoT 플랫폼이 이미 자동차에서도 지원되는 만큼, 커넥티드카 기능도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쉬를 비롯한 전장 기업들도 IoT에 많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IoT 표준이 자리를 잡으면서 스마트홈 플랫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시장에는 스마트싱스와 알렉사, 구글홈과 함께 애플 홈킷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LG전자도 매터 표준과 HCA 회원으로 참여하며 씽큐 애플리케이션에 'UP가전'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변수는 '허브'다. 매터 표준을 만든 CSA는 '지그비 얼라이언스'를 전신으로 하는 만큼, 매터 표준을 지원하는 제품 중에서는 지그비 통신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적지 않다. 지그비는 와이파이와 비교해 전력 소모가 적고 안정적인 단거리 통신을 지원한다. 다만 지그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그비 통신을 지원하는 허브가 필수적이다. 삼성전자가 신제품 냉장고와 모니터 등에 허브를 내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TV용 스마트싱스 허브 '동글'을 출시하기도 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김재웅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위드 코로나' 내수회복 기대... 6% 전망도

2023 차이나 기상도

3 경제성장률 <골>

지난해 봉쇄 여파 2~3%대 예상
올 리오프닝 기대감에 전망 높여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성장 시계가 불투명해졌다. 3년간 이어진 팬데믹에 고집스러운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이 더해지면서다. 작년 중국의 성장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세계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고, 당초 2020년대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꿈도 물거품이 됐다.

◆작년 중국 성장률...2% vs 4%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감염' 통계 만큼 중국 성장률을 놓고도 의견차가 크다.

일단 중국 당국은 낙관적이다. 작년 목표치로 제시했던 '약5.5%'는 달성하

지 못했지만 최소4% 이상은 성장했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GDP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3% 성장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중국은 세계 2위 경제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며 "2022년 국내총생산(GDP)이 사상 처음으로 120조위안을 넘겼다"고 말했다. 중국의 2021년 GDP를 감안하면 작년 성장률이 4.4%라는 얘기다.

반면 시장의 예상은 기존 3% 안팎에서 2%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 이전 봉쇄 여파와 위드 코로나에 따른 감염자 급증의 충격이 뒤섞인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도 나왔다.

중국경제연구기관인 차이나베이징인태셔널(CBBI)은 "지난4분기 중국 제조업·서비스 기업들의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됐고, 특히 부동산 부문의 지표들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다"며 작년 성장률이 2%에 그칠 것

로 봤다.

세계은행 역시 작년 성장률로 2.7%를 제시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3.2%, 3.3%로 예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2022년 중국 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성장률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최대 6%도 가능?

올해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하는 이견이 없지만 관건은 반등의 폭이다.

한국은행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2023년 중국 경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분기 중에는 감염자 급증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겠지만 하반기 들어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l@



사라진 꿈 '유커의 귀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되면서 '유커의 귀환'을 기대했던 대중 관광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항공편 증가와 막혔던 해상여행 재개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스1

서울 전월세 거래 두건 중 한건은 '월세'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50.9만건
월세만 25만건 넘어 49.2% 차지

지난해 서울의 주택 월세 거래량이 25만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0만 91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25만 670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9.2%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주택 월세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2만 1512건에 달했다. 이어 ▲관악구(1만 9971건) ▲강남구(1만 6992건) ▲동작

구(1만 3933건) ▲광진구(1만 3122건) ▲강동구(1만 2455건) ▲서초구(1만 2432건) ▲마포구(1만 2330건) ▲강서구(1만 3633건) 순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짙어졌고,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져 주택 매매와 전세 수요는 줄고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진복, 尹·與 중대선거구제 사전 교감 여부에 "전혀 아니다"
▲ 조희연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 교육 자주성 훼손할 것" /사진 뉴스1

▲ 정부, 주교황청 대사 첫 여성 임명...오현주 주유엔차석대사
▲ 황보승희, '보이스피싱 피해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법안 발의



▲ 정진석 대통령 특사, 브라질 펠레 빈소 방문·동포 간담회 /사진 뉴스1
▲ 이재명, 美 '尹 한미 핵훈련' 부정에 "尹 경솔한 발언은 코리아 리스크 핵심"